

#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에 이용희·정광주·얼쑤 선정

시상식 내달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문화유산·미술·공연 분야…한우물상·특별상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되는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19일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에 따르면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는 문화유산 부문 대상에 이용희 청자장, 미술 부문 대상에 정광주 서예가, 공연 부문 대상에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얼쑤’(대표 김양균)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유산 부문 이용희 청자장은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강진 대구면 사당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600여년간 단절된 고려청자를 국내 처음 재현한 장본인으로,

반평생을 고려청자 발굴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미술 부문 정광주 서예가는 50여 년이 넘도록 남도 서예 발전에 지대한 공을 이뤄 주목받았다. 1989년 국전과 미술대전에서 서예가 최초로 분리돼 개최된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서예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광주미술협회장을 역임, 낙후된 지역 전통미술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광주전통미술협회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기금마련을 위해 소장작을 모두 내놓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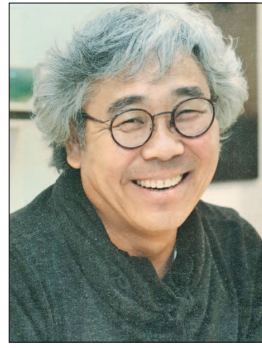
공연 부문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얼쑤는 우리 고유의 사물놀이와 모듬북



이용희 청자장



정광주 서예가



얼쑤 김양균 대표

등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온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농악 팽과리 전수조교이자 가톨릭청년연합회 놀이패 출신인 김양균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된 전문 타악기 그룹으로, 한국 전통 예술인 풍물굿을 통해 흥과 신명을 전달해왔다.

한우물상에는 서각공예 나갑, 도예 이은석, 인장공예 장국신, 양복 명장 전병원, 나전칠기 조규열씨가 각각 선정됐고,

미래인재상에는 금융웅(국악), 김술(문화기획), 박기찬(전통섬유), 송해랑(금속공예), 우남일(취타대)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 특별상은 김용하(남북문화상), 공로패는 박광태(전 광주시장) 씨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한우물상 수상자에게는 각 200만원, 미래인재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 특별상 1명에게는 300만원 등 총 3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상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민간단체가 관의 지원없이 이처럼 뜻깊은 상을 제정, 매년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전통을 지키는 일에 뜻있는 시민 여러분과 대상운영위원, 이사님들의 동참과 문화 나눔의 후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힘이 되고 감사할 뿐이다”면서 “전통문화에 지대한 관심과 꾸준한 참여를 이어가는 시민들의 참여가 문화를 증진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후 대동문화 운영이사장은 “무엇보다도 전통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조상열 대표만이 이를 수 있는 일이며 그 가치가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작은 힘이지만 보태는 마음이 넉넉하고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이용범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

장은 “해가 갈수록 시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은 전통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기에 더욱 가치가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대동문화예술축전’과 함께 치러진다.

한편, 대동전통문화대상은 장인 정신으로 한우물을 파며,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발전에 매진해 온 이들을 격려하고, 숭고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총 8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는 제7회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한달 간 수상 후보자를 공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GS칼텍스, 해양생태계 복원…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

지역 아동·임직원 가족 참여  
해양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지난 18일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인근 해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충,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신입 인턴사원, 여수YMCA 소속 아동,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번달 11일 GS칼텍스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여수YMCA가 체결한 ‘블루 카본 염생식물 조성사업 업무협약’의 첫 실행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조성 모델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여수YMCA가사리생태교육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블루카본·해양환경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반월마을 해역에 해홍나물과 통통마디 등 염생식물 5kg의 씨앗을 파종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염생식물



GS칼텍스, 여수YMCA,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봉사자들이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해역에서 ‘I am your Green Energy’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은 염분이 많은 연안 토양에 서식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대표적인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공식 인정한 블루 카본 생태계 자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GS칼텍스와 지역사회가 함께한

이번 활동은 탄소흡수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블루카본 조성사업의 모범 사례다”며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GS칼텍스는 ‘I am your Green Energy’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흡수 확대와 지역상생을 결합한 ESG 봉사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바다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윤정철 전남대병원 교수, 한국에브리비 학술연구상

안구건조증 신규 진단·치료법 제시 ‘호평’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윤정철 안과 교수(사진)가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및 아시아 폐쇄각막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에브리비 안과학자를 위한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교수의 수상 논문은 ‘한국형 안구건조증의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New Korean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dry eye disease)’이다.

한국건선안학회 회장인 윤 교수의 주도



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

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학술연구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한국에브리비 학술연구상은 한국에브리비의 후원으로 대한안과학회에서 각 분야의 최우수 학술논문을 매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



송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활동가 체험 프로그램(이음마켓)’ 1차 활동을 개최했다.

## 송원대 ‘마을활동가 체험 프로’ 1차 운영 성료

건강·환경 활동 실천…도심형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송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활동가 체험 프로그램(이음마켓)’ 1차 활동을 1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추진하는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 건강·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도심형 리빙랩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1차 활동에서는 송원대 재학생 10여명이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 전문가와 함께 스포츠 테이핑 △탄력밴드 활용 운동처방 △부상 예방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학생들이 시연한 테이핑 기법, 스트레칭, 근력 강화 동작 등을 직접 배우고 실습해보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행사에는 운동 가이드 제공, 간단한 상담, 건강 체험 부스 운영 등이 강화돼 일회성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 교육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원대 김호연 RISE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건강·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실질적 현장 학습을 경험했다”며 “이번 활동은 교육을 매개로 지역 사회와 대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생형 리빙랩 모델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원대 RISE사업단은 오는 22일 동일 장소인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에서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차 활동은 학생 실습을 더욱 강화해 △현장 운동처방 지원 △건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행사 지원 등이 이뤄지며,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후기 공모전을 통해 우수 학생에게 시상도 진행된다.

송원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환경 기반의 리빙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화물운수종사자 등 대상 건강서비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동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서 운영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9일 전국화물공영차고지 1층 휴게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화물운수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부터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건강진단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건강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쉽게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인력 4명이 참여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인바디 검사,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지원을 제공했으며, 모든 상담과 검사비용은 무료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체계적



인 건강 관리와 맞춤형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화물운수종사자·자영업자 건강서비스는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단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해 화물운수종사자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들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배후단지 폐기물 수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들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광양항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정화활동은 항만공사를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관리(주)·서측 배후단지 입주기업 18개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공원,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항만공사는 이번 민관 협업체계로 진행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공사와 입주기업 간의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환경문제 해결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홍상표 항만공사 운영부사와장과 남철희

노동조합위원장도 정화활동에 참여해 ESG경영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업 간 협업,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ESG 실천을 포괄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양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상생의 대표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ESG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환경정화활동 외에도 친환경한 인프라 구축,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다양한 ESG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